

문화공간지, 2006, 1월호 p. 46~49.
(Cultural Space, jan., 06)

부수기 위한 경계위에서 보다. 혹은 보여지다. 송은영의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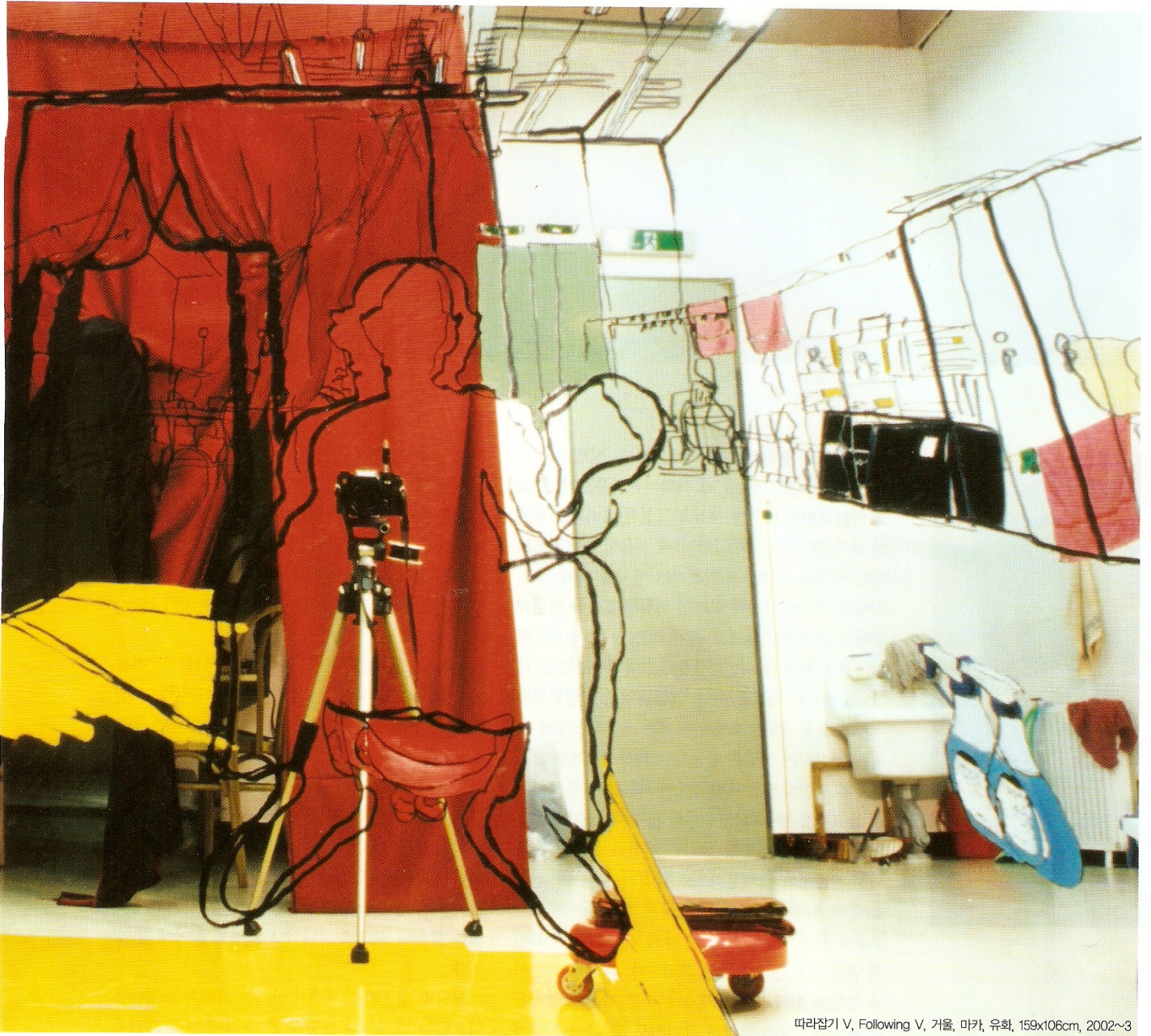
객원기자_김최은영/사진_노세환



전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품, 혹은 액자라 생각하는 속성들 앞에서 무언가 바라보고자 선다. 바라보기 위해 선 나의 눈앞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은 어떠한 형식의 조형적 요소나 색감이 아니다. 단지 느닷없이 등장하는 바로 자신을 만나게 된다. “거울” - 송은영의 작업은 거울위에 놓여있다. 관람자는 거울 혹은 작품속의 자신의 얼굴 관찰이 끝난 후에나 거울에 등장하는 다른 시각적 요소들을 살펴 보게 된다. 사진콜라주와 그 위에 덧칠해진 작가의 행위, 그리고 선으

로 이루어진 드로잉, 이후 다시 관찰의 시점은 거울 혹은 작품 속에 비춰진 다른 공간의 모습들이다. 전시장안의 다른 풍경들과 다른 사람들. 흥미로운 구경을 끝낸 후 궁금증 하나 생긴다. 어디까지가 작품 혹은 액자일까? 거울 혹은 작품의 틀인 액자까지가 송은영의 작업일까. 아니면 시점마다 무수히 달라지는 사물들의 투영까지일까.

거울이라는 투영하기 좋은 물성을 가진 사물을 통해 송은영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의 경계에 대해 혹은 어디까지가 허상이고 사실인지



따라잡기 V, Following V, 거울, 마카, 유화, 159x106cm, 2002~3

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묻는 듯하다. 주어진 틀 속에서 관찰하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흥미롭고도 불안한 경험이다. 다행히 친절한 그녀는 우리에게 액자라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준다. 안심이 된다. '액자까지가 그녀의 작업일꺼야.' 익숙함으로 맞는 안도감은 이내 다시 깨어진다. 부서진 액자. 다시 부서지는 경계들이다. 바라보는 내가 보여지는 그림 앞에 서있지만 보여지던 그림들 속에선 바라보는 내가 보여지는 위치로 전이 되어버린다.

송은영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 나는 또 수많은 거울들을 만난다. 그녀의 작업이 거울을 통해 이루어져 있으니 사방에 널린 작업들이 온통 거울이기 때문. 뒤적뒤적 옛그림들을 보다 97년 유학당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그렸다는 유화작품하나 발견한다. 창가에 놓인 거울과 거울 속에 들어있는 작가의 얼굴, 그리고 거울속에 비춰진 공간과 실존하는 공간의 교차. 실마리를 풀어가기 좋은 단초다. 회화는 제한과 공간게임의 게임이라고 말하는 송은영은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는데서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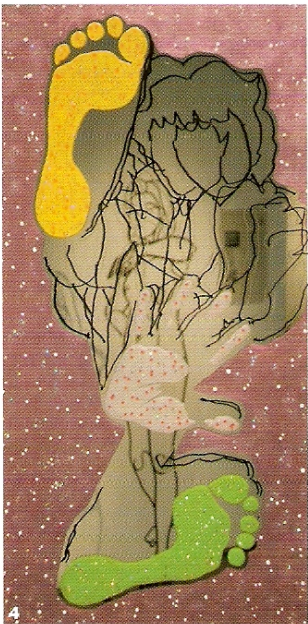
1



2



3



4

조형적 재미를 느껴 나온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평면으로만 그렸을 때 나타나는 '즉물적' 대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작업을 사진의 이미지로 차용한 뷰파인더식 접근이라면 아예 실물이 객관적으로 담긴 사진을 그대로 도입하지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사진과 회화의 접합점 찾기는 현상과 철학을 표피적인 것으로 옮겨 내는 것이 아니라 짚어내는 과정과 그리는 과정을 혼합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을 찍고 인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작가의 힘을 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조형적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는 작업은 한동안 자화상시리즈로 오해 받으며(자신의 얼굴이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은 재료가 필요했을 뿐이라는 작가의 설명이다) 지속된다. 사진과 회화의 접합점 찾기는 객관과 주관의 혹은 이성과 감성의 대치형식으로 발전되어지는데, 거울을 통해 비추지는 자신의 얼굴과 실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과 그리기의 두 가지 기법으로 한 화면에 담는 일련의 작품들이 그러하다.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보여지는 자신의 얼굴을 감성이라는 접근 방식의 그리기로 또 그러한 것에 관한 성찰을 보다 객관적인 눈을 통해 바라보고자 했던 행위가 사진찍기라는 행위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대치상황이 되어버린 이러한 감정들은 캔버스라는 불필요한 벽이 다시 가로막아버리고 있다고 느낄 즈음 송은영이 선택한 재료가 바로 거울인 것이다. 거울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착시된 이미지와 현존하는 실제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경계의 문제가 거울만으로는 해결되

지 않는다. 다시 송은영은 자신의 얼굴을 눌러 찍은 사진 위에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드로잉을 시작함과 동시에 착시된 공간에 대한 허무와 실존하는 자아의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따라잡기" 시리즈가 그것이며 이 일련의 작업들은 결국 '부수기 위한 경계'로 집중되는 본격적인 출발이 된다.

본격적으로 거울 위에 발을 딛고 서서 실존하는 허상을 선으로 따라 잡아가 간다. 한쪽 눈을 감고 초점을 맞추며 하나의 흔적을 남긴 후 다시 반대편 눈으로 따라 잡는다. 거울 위의 드로잉을 이렇게 진행되며 그 후 시선을 공간으로 돌려 일상의 소품들이 화면에 자리잡는다. 처음엔 드로잉이 아닌 그리기의 형식으로 색면을 입혀가며 하던 작업은 노동의 시간이었다. 작가는 그 노동의 시간이 버거웠던 선으로 된 드로잉의 등장을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물입에 의한 함축의 코드로 그녀의 드로잉을 읽어야 할 것이다.

허상과 실존의 문제에서 만나는 자아와 그것들을 읽으려는 타자와의 소통의 관계. 송은영은 그러한 트라이앵글을 자신이 선택한 재료들을 경우에 따라 적절히 차용하면서 궁극으로 실존하는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흔적'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 말하는 송은영이 부수기 위한 경계를 만들고 다시 그 부서버린 경계 위에 흔적을 남기는 까닭은 결국 실존의 문제 아닐까 싶다.

평면 공간의 시작점은 내가 서 있는 즉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시점부터이며 없어질 세상이지만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속에서 나라는 것의 궁극의 의미

- 1 Eve / Eve(A.I.V. / A.I.V.), 천 위 유화, 천 콜리주, 81x60cm, 1998
- 2 끼어들기 I, Interference I, 거울 위 사진인화, 아크릴, 변형액자, 103x100x7cm, 2003
- 3 Untitle, 천 위 유화, 거울 위 감광유제, 50x50cm, 2001
- 4 은하수를 밟고 온 나르시스 IV, 거울 위 마카, 매니큐어, 60.2x30.2cm, 2004
- 5 따라잡기 VII, Following VII, 비닐 거울, 종이, 마카, 가변설치, 2003~4



로 작가의 꿈과 환상을 말한다. 그러한 존재감은 꿈과 환상인 동시에 은하(우주)에서 비롯된다고 수줍게 설명하는 작가 송은영. 송은영의 거울 혹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반짝임은 은하에서 왔다면 당연히 묻어있을 법한 별들의 흔적인 동시에 그녀자신의 흔적인 셈이다.

은하에서 묻어 온 별들의 흔적이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미 경계를 부수고 있는 그녀의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profile

송은영(宋恩英)

개인전

- 2005 '장님의 기억' 관훈갤러리, 서울
- 2005 'Dimension Make-up' 갤러리 드림, 서울
- 2004 '따라잡기 / 끼어들기' 아티누스 갤러리, 서울
- 2002 '다른 곳과의 경계에서' 동호갤러리, 서울
- 2001 '유일한 견데기' 동호갤러리, 서울
- 1999 '불확정적 자화상' 국제 예술공간 아드작 미술관, 파리, 프랑스

아트페어

- 한국국제아트페어(2002 BEXCO, 부산 2004, 2005 COEX, 서울)
- 중국국제화랑박람회(2004, 북경)
- 화랑미술제(2001, 2002, 예술의 전당, 서울)

단체전

- 2005 'Yoo Festa' 유아트 스페이스, 서울
- 2004 '중심과 구성'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다른 구석들' 아트스페이스, 서울
- '이상한 펠리치타' 펠리치타 갤러리, 서울
- 'Nothing or Vincent, Andy?', 그린포토 갤러리, 서울
- 2003 송은미술대상전, 광평아트센터, 서울
- 한국유명작가 초대전, 규슈미술관, 일본
- 창동 미술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서울
- 정예작가 초대전, 인사이트 프라자 갤러리, 서울
- Korea Art Festival, 인사이트 프라자 갤러리, 서울
- 한국 미술 협회전, 예술의 전당, 서울
- 세종 회화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2001 '화상' 동호 갤러리, 서울
- 2000 몬테카를로 국제 현대 미술제, 모나코 국립미술관
-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광주 비엔날레 미술관
- '기억속의 형상' 동호갤러리, 서울
- '한민족-그 날처럼 하나되어' 동호갤러리, 서울
- 1996~9 '그 산야' 동호갤러리, 서울
- '새날의 발자취' 동호갤러리, 성루
- 일-드-프랑스 지역, 시빌 예술축제
- 빠리1대학 썹-사블르 전시실 단체전

학력

- 1996~9 프랑스 뵘뵘-소르본느 빠리1대학 조형예술학과 대학 및 대학원 졸업
- 1995 프랑스 베르사이유 미술학교 조형예술 (사진, 회화)전공
- 1994 세종대학교 회화과 졸업

기타경력

- 극동정보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극동대학교 출강
- 창동 미술 스튜디오 1기 입주 작가(국립현대미술관 2002)

현재 시립대, 세종대, 용인대 출강

